

천만분의 1의 기적

김금비 율리안나 / 분평동

산골에 위치한 작고 아담한 우리집은 이웃하고 있는 집이 단 한 채도 없는 외딴집이었다. 그날은 새하얀 눈이 소복하게 내리던 깊은 겨울밤이었다. 어디선가 어머니의 날카로운 비명과 함께 몹시 놀라 울부짖는 소리에 잠이 깼다. 정신없이 밖으로 나가 보니 고꾸라진 채로 온몸이 경직되어서 말도 제대로 못하시는 아버지가 눈 쌓인 마당에 쓰러져 계셨다. 어머니와 언니는 어찌 된 일인지 영문도 모르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아버지를 방으로 데리고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었다. 나와 어린 남동생도 그런 아버지를 옮기기 위해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아버지를 간신히 방에 누이고 난 후의 상황은 절망 그 자체였다. 아버지는 온몸에 감각이 없다고 하시면서 손이든 발이든 바늘로 따서 피를 내보라고 하였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열 손가락 발가락을 바늘로 사정없이 찌르기 시작하셨다. 결국 피가 나지 않자 어머니는 아버지의 팔을 잡아 이로 물어뜯어 어떻게든 피가 나게 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셨다. 아버지는 물어뜯기는 아버지의 팔이 고무를 씹는 것 같고 몸에 아무런 감각이 없다고 하시며 다 포기하신 듯 눈물을 흘리시면서 허공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계셨다.

어머니는 언니와 나에게 집 아래 동네로 뛰어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가까운 서씨 할아버지 댁에 가서 누구든 불러오라고 하셨다. 나와 언니는 손을 잡고 울면서 껌껌하고 무서운 그 밤을 뛰어가 서씨 할아버지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의 축 처지고 경직된 모습을 보고 놀라 이것저것 다 해 보시던 할아버지는 고개를 가로저으시면서 어머니를 바라보셨고, 어머니는 춥고 암흑에 싸인 그 밤, 세상을 모두 잃은 듯이 서럽고 서럽게 울고 또 울기 시작하셨다.

그 후 아버지는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기 시작하셨다. 아버지의 병명은 경추 눌림 손상으로 인한 전신마비, 즉 식물인간이었다. 모든 친인척들은 아버지가 살아날 가망도 없고, 혹 산다고 해도 평생을 병원을 벗어나 살지 못하니 어머니를 설득하여 당장 치료를 중단하고 포기하라는 말씀들을 하셨다. 어머니는 그런 말들은 아예 들은 척도 안 하였고, 오히려 불안해하는 우리 삼 남매를 다독이며 괜찮다고 안심시켜주셨다. 우리는 어머니가 우리를 버리실까 봐 두려워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 상황에 대해 절망하고 슬퍼하고 분노하는 모습을 절대로 우리에게 보이지는 않으셨다.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본 어머니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신 모습과 수없이 많이 흘리신 눈물 중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다.

한 달 남짓의 시간이 지나고 살아날 가망이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아버지는 어머니를 통해 조용히 우리 삼 남매를 부르셨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우리에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말들을 건네기 시작하셨다. 솔직히 그때는 너무 어렸기에 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했다. 나는 삶의 어려운 순간들이 생기게

될 때면 지금도 가끔씩 그 아픈 기억이 어렴풋이 떠오르곤 한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안 해 본 일이 없으셨다. 용하다는 무당에게 굿도 맡겨보셨고, 몸에 좋다는 약이며, 아버지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누군가가 있다고만 하면 불물 가리지 않고 수소문하여 찾아다니시기도 하셨다. 하지만 모두 소용없는 일이었고, 아버지는 꼼짝없이 누워계시기만 하시니 곧이어 등 쪽에 욕창이 생기기 시작했다. 욕창이 생기면 금방 죽는다는 말을 듣게 된 어머니는 하루에도 열두 번씩 아버지의 몸을 주무르고 마사지하여 세포 하나하나를 살려내시려고 죽을힘을 다해 애를 쓰셨다. 그러는 동안 어머니의 몸과 마음도 하루하루 지쳐가고 계셨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병원에서 필요한 생필품을 가지러 집에 오신 어머니가 당시 아홉 살이었던 내게 불쑥 이런 말씀을 하셨다. “아랫마을 사는 영훈이랑 선영이 알지? 그 집이 예전부터 성당을 다닌다는데, 너 개네들 따라서 성당에 한번 가 볼래?” 그 시절엔 어머니도 성당이라는 곳을 단 한 번도 가보신 적이 없었고, 그 말을 건네들은 내가 가야 할 성당은 집과는 꽤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주 주일부터 남동생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따라서 무작정 성당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다. 이유는 없었다. 단지 엄마의 그 한마디 “성당에 한번 가 볼래?”라는 말 때문이었다. 지금도 그날 처음 성당 문을 열고 들어서던 그 순간의 감격을 잊을 수가 없다. 분명 낮은 곳에 들어섰는데, 낮설기는커녕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던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그다음부터 성당이라는 곳은 나에게 조용하게 기도하며 대화를 나누는 비밀장소가 되었고, 운동선수였던 언니를 제외하고 나와 남동생은 주일마다 먼 길을 걸어서라도 성당에 다니게 되었다. 가기 싫다며 울고 떼를 쓰는 남동생에게 봉헌금을 쪼개어 간식거리를 사주면서 열심히 데리고 다니기 시작했다. 주일학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교리와 기도문을 열심히 따라 외우고 틈이 날 때마다 조용히 무릎을 꿇고 앉아서 두 손을 모아 기도를 했다. 제발 아버지를 우리 곁에서 떠나지 않도록 해 달라고. 3학년 봄, 나와 동생은 첫영성체 교리를 시작하게 되었다. 103 문답의 교리를 외우고, 기도문들과 묵주기도를 시작하면서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향한 너무도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도 더욱 열심히 하게 되었다. 어머니도 아버지가 낫게 되면 우리와 함께 성당에 가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아버지가 입원하신 지 4개월이 다 되어갈 무렵 병원에서는 새로운 치료가 시작되고 있었다. 머리뼈에 구멍을 뚫어 추를 달아 침대 아래로 늘어뜨려 경추가 눌러 손상된 부분을 눌러 병을 치료하려는 것이었다. 병원에서도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시도를 해 보는 치료 중의 하나였다. 지금은 그런 치료가 흔한 일이 되었지만 그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 우리는 병원에 갈 때마다 아버지의 그런 기괴한 모습에 조금 놀라기는 했지만 어린 마음에 그래도 살아계신 아버지와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도 행복했다.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어머니는 반갑고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들려주셨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말씀은 이러했다. 아버지가 삶의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때 병원 가까이 있

는 성당 종소리가 아버지의 귀에 은은하게 들리셨고, 가족들을 위해서라도 살아야겠다는 결심을 하셨다고 했다.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건 바로 그 순간 새끼손가락 하나에 힘이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조금씩 몸을 움직이게 되셨다는 이야기였다. 그 날부터 아버지는 빠르게 회복하시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나아지셔서 4개월 만에 드디어 병원에서 퇴원하게 되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 가족들에게는 기적이었다. 아마도 우리 가족이 힘을 모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습을 하느님께서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만 같았다.

그 후 우리 가족 중에 가장 처음으로 나와 남동생이 세례와 더불어 첫영성체를 받게 되었고, 나는 청소년 레지오 활동을 동생은 주교좌성당에서 향복사를 하며 봉사활동을 하게 되었다. 물론 어머니도 먼저 세례를 받는 우리들의 보증을 서신 덕분에 세례를 받으셨고, 언니는 운동 선수였던 이유로 그다음, 아버지가 제일 마지막에 세례를 받으셨다. 이후 아버지를 비롯한 우리 가족 모두는 견진성사까지 받게 되었다.

어머니는 새로 건립하는 성전을 위해 성모회와 레지오 활동을 정말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하셨으며, 기쁜 마음으로 꾸르실료 교육을 수료하셨다. 나도 주일학교 교사를 했으며 결혼 후에도 조금씩 신앙생활을 이어나갔다. 우리 삼 남매는 모두 혼인성사를 받았고, 각각의 자녀들도 세례와 첫영성체를 모두 받았으며, 결혼 전 무신론자였던 나의 남편도 결혼 10년 만에 세례와 첫영성체를 받게 되었다. 작년 7월 나는 어머니에 이어 2대에 걸쳐 꾸르실료 교육을 받게 되었다. 세월이 흘러 이제는 연로하시고 병약해지신 아버지는 집에서 봉성체를 하고 계신다. 나는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이 모든 일들이 주님의 축복과 은총으로 빚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며칠 전 부모님 댁에 갔을 때 딸과 함께 어릴 적 내가 걸어 다녔던 집에서 성당까지의 거리가 궁금해서 내비게이션을 이용해서 측정해 보았다. 그리고 깜짝 놀랐다. 집에서 성당까지의 거리는 왕복 14km였다. 어린아이들이 걸어서 다니기엔 정말 먼 거리였다고 웃으며 이야기를 어머니께 했더니 어머니께서도 놀라시며 이렇게 말씀 해주셨다.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를 하느님께서 살려주셨던 거야. 너희들이 걸어 다니면서 외우고 또 외우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너희 아버지를 일으켜 세우게 하셨던 거야. 그 먼 길을 다니면서도 아버지를 살려달라고 했던 어린아이들의 간절했던 기도를 주님이 들어 주셨던게지....”

라고 말이다.

이 글을 쓰는 동안에도 신앙 체험과 더불어서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를 드린다. 오래전 하느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기적을 선물해주셨다. 천만 명 중의 한 명도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어렵다는 그 병을 하느님께서 낫게 해주신 것이다. 우리 가족 모두가 드리는 간절한 기도를 하느님께서 들어주셨다고 나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다.

내가 경험한 이 신앙 체험은 우리 가족에겐 정말 천만분의 1인 기적이었다.